
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미래대응기금 이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14.(월) 조선일보(온라인), “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‘간판같이’”

2. 설명 내용

- 미래대응기금에는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 과실의 세대·지역 확산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관됐으며,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기사에서 언급된 ‘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’ 사업과 ‘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’ 사업은 ’26년 현재 순조롭게 집행·추진되고 있으며,
 - 내년도에는 청년 등 현장의 수요, 국회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는 ’27년 예산이 확정될 경우,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청년이 필요한 지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>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취업·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’27년에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지원 범위 확대, 청년 지원금 수준 인상 등 재정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□ 또한, '25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자 고용유지율 적용 등 사업 개선과 집행 관리를 통해 집행률*을 제고하고 있으며,

○ '26년에는 편성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* (집행률) '22년 43.0%, '23년 80.9%, '24년 80.3%, '25년 90.8%

<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>

□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현장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, '27년에는 청년 선호가 높은 지원을 확대하고, 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.

□ 높은 경쟁률('25년 인턴형 경쟁률 4:1 등)과 만족도(91.2점)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강화하고,

* 취업취약청년청년(준비중·장기미취업·장애인 등) 위한 맞춤지원형 유형 신설 등

○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주도의 훈련프로그램인 K-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○ 더 많은 지역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편(지방비 매칭비율 축소 등)하고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	책임자	과 장	최윤미 (044-202-7440)
		담당자	사무관	천민정 (044-202-7417)
	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지원 (044-202-7451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진 (044-202-7715)
	청년고용정책관 청년채용기반과	책임자	과 장	조우균 (044-202-7432)
		담당자	사무관	임동훈 (044-202-7466)